중흥동에 자동차 복합문화 클러스터·임동에 콘텐츠 팩토리

'아! 80년 오월이여! 도청이여' 사진전 관람 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농성장 2층에 마련된 옛 전남도청 복원 농성 1주년 상설전시 '아! 80년 오월이여! 도청이여'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도시재생 뉴딜 어떤 사업 있나

도심 정비 사업비 절반 국비로 해결 기회

5개 구청 5억~300억 규모 126건 신청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낡은 도심을 정비하고 새단장하기 위한 지자체 숙원사업에 국비 지원을 무더기로 받을 수 있어 '블루오션'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이 지역 일선 구청들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심 숙원사업을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앞다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광주시, 현안 사업 국비지원 계기로**=광주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하 가칭)자동차 복합문화 클러스터(중흥동·신안동) ▲시민통합공간 조성(농성동) ▲광주콘텐츠팩토리(임동·신안동) 등 3개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역 이전 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계획됐지만 국비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광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이들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중심 시가지 형'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문화 클러스터'는 사업비가 500억원이며 광주역 인근에 65만㎡ 규모로 자동차 부품상가와 연계한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중고부품을 활용한 자동차 재생 단지와 산·학·연 연계 튜닝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청년 창의지식 허브도 이곳에 들어서게 된다.

'경제기반형'인 '시민통합공간 조성'은 1000억원을 들여 농성동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140만㎡ 규모로 조성되며, 트라우마센터와 도심힐링공원 등도 들어선다. 기무사부대 옛터를 활용해 시민문화활동 중심지도 만들고 시민예술촌 조성과 역사문화광장 조성에 곁들여진다.

이 밖에 '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되는 '광주콘텐츠팩토리'는 500억원을 들여 72만㎡의 부지에 문화기술산업 중심지와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첨단 섬유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5개 구청, 국비 지원 기회로**=광주지역 일선 구청들도 관내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최근 광주시에 신청했다.

동구청은 도심 공동화에 따라 버려진 공간과 낡은 건물 등을 새로운 문화 공간을 꾸미기 위해 16건을 발굴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도시재생사업(300억원·서남동) ▲광주극장 주변 도시 재생사업(300억원·충장동) ▲해뜨는마을재생사업(200억원·학동) ▲지원구역주거환경 뉴딜사업(100억원·지원1동) 등 구도심과 오래된 주거지 중심의 도시 뉴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구청은 ▲의기양양공동체마을(100억원·양동) ▲광주천따라 건강 광천(100억원·광천동) ▲농성광장재생사업(200억원·농성동) ▲문화와 예술이 있는 창작 농성골(100억원·농성1동) 등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마을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12건을 신청했다.

또 남구청은 ▲방제골 동네 살리기 사업(100억원·방림1동) ▲무등시장 주변 동네살리기(100억원·주월2동) ▲수박등 동네 살리기(100억원·월산동) 등 동네별 재생을 중심으로 한 18건을 준비하고 있다.

북구청은 ▲응답하라 1982(7억원·임동) ▲용전들노래 특성화사업(12억5000만원·용전동) ▲테마가 있는 행복장터(50억원·용봉동) 등 저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46건을 신청했다.

광산구청도 ▲송정동 중심시가지 재생사업(200억원·송정동) ▲임곡동 주거지 근린 재생사업(200억원·임곡동) 등 주거정비 사업이 중심인 34건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로 선정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정기국회에서 국민의당 주도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안철수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민의당 주도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호남 민심탐방을 위한 광주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전 일찍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5월 정신이 시대정신'이라고 적은 뒤 본격적인 지역민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1980년 5월 당시 장애인증을 제시했음에도 계엄군의 폭력에 사망해 광주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로 기록된 고 김경철씨,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임산부 고 최미애씨,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며 희생자의 사연을 일일이 경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안 대표는 "민주묘지를 한 달 만에 다시 방문했다. 당대표로서 국민의당이 나아갈 바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초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양극화시대 제3당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안 대표는 "정치에서 두 정당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되려 한다"며 "두 당을 갖고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힘들기 때문에 3당 체제, 다당체제에 국민이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남에서도 1당 독점체제가 지속했다면 요즘 같은 인사는 아마 없었을 테지만, 경쟁체제가 도입되다 보니 서로 국민께 잘 보이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다당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실현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실천적 중도개혁 노선의 방향이다"면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에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국민의당의 길"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안 대표는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1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 범시민대책위를 찾아 "도청 복원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이후 광주시당에서 상임고문·고문단과 간담회를 하고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 대비책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선거 9개월여 앞 … 발걸음 빨라진 정치권

민주당 광주시당 선출직평가위원장에 황인창 교수 내정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최경환 의원 선임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정치권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꾸리는 등 부쩍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남에서의 '총선 참패'를 만회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국민의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에 따라 최근 안철수 대표가 4박 5일 일정으로 광주·전남 곳곳을 누비며 지방선거 대응 조직 구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7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조선대 황인창 교수를 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조만간 중앙당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김용근 교수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시·도당은 위원장이 선임되는 대로 평가위원을 9~15명으로 구성해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평가한 뒤 내년에 구성되는 공천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에 반영된다.

국민의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지난 6일 안철수 대표가 첫 지방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 지방선거 대응 체제를 점검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늦었던 만큼, 안 대표는 중앙당 정비에 이어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호남 조직을 정비하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공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이 지역과 함께 공조해 인재를 영입하고 경우에 따라 전략공천도 고민하며 시·도 당과도 사전에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최경환(북구을) 의원을 선임하고 시당과 8개 지역위원회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당원 배가운동을 벌이는 한편 경쟁력 있는 후보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